

강유라/코토 유라

최근 수정 시각: 2025-04-04 00:00:00

분류:[테니스의왕자](#) [등장인물](#)

강유라 /코토유라
(姜裕羅 | Yura Kang)
(小藤裕羅 | Yūra Kotō)



이름

강유라 (姜裕羅)[\[1\]](#)

코토유라 (小藤裕羅)[\[2\]](#)

소속 / 위원회

세이슌학원 중등부 3학년 6반 / 도서위원

포지션

전학생

생일

3월 20일 (물고기자리)

신체

158cm, 42kg, 235mm, 좌 1.2, 우 1.3, A형

쓰는 손

오른손

[정보 더 보기 펼치기 • 접기]

취미

그림, 테니스 경기 관람

특기

핸드메이드 전반

가족	아버지, 어머니 오빠 강유진 (姜裕進)[3]
아버지의 직업	프로 테니스 선수출신의 테니스 고문
특기과목	영어, 미술
취약과목	고전, 일본어
자주 방문하는 학교의 특정 장소	미술부 창가 테니스 코트가 보이는 곳
출신 학교	한어울 초등학교, 청연중학교
용돈 사용처	귀여운 소품 구입
좌우명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좋아하는 음식	한국의 매운 분식, 복숭아, 특히 복숭아 샤베트
좋아하는 영화	로맨틱 코메디, 힐링무비
좋아하는 책	어린왕자, 마음가는대로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
좋아하는 색	민트, 하늘
좋아하는 타입	상냥한 사람
가고싶은 데이트 장소	호수가 보이는 곳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	시나모롤 키링[4]
일과	홍차 마시기, 그림
거북한 것	거짓말

목차

- 1.개요
- 2.생애
- 3.외모
- 4.작중 행적
- 5.인간 관계
- 6.여담
- 7.어록

V 1.개요

‘응? 내가 말 안했나?’

아무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에서 그녀의
무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테니스의 왕자](#)의 비공식 등장인물.
[후지슈스케](#)의 드림주.

[편집]

V 2.생애

어머니는 일본 굴지의 기업, [코토산업](#)의 유일 후계자. 한국에 여행 왔다가 우연히 만난 아버지에게 반해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해 유라가 태어난다.[5]
한국에서 유복하고 화목하게 살던 유라는 일본의 외조모의 고집으로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와 살게 된다. 외조모는 사립 여학교로 보내려 했으나 유라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고교까지는 평범한 생활을 약속 받았다. 그렇게 전학하게 된 학교가 사립 세이슌학원 중등부. 세이슌에서 테니스의 천재 후지 슈스케와 만나 친구로.. 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편집]

V 3.외모

크림빛 머리칼에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들어간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 보라색 눈동자는 사뭇 제비꽃을 연상시키는 청초한 외모.

[편집]

V 4.작중 행적

세이슌 학원의 전학생. 후지가 처음 보고 계속 신경이 쓰였다. 이내 그것이 사랑임을 깨달지만 둘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6] 어느날 우연히 곤란에 처한 유라를 후지가 도와주면서 둘은 친구 사이가 되고 후지가 매운 것을 잘 먹는걸 알게 되어 의기투합하게 된 둘은 즐거운 식사 메이트가 된다.[7]
후지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어필해도 유라가 알아주지 않자 교실에서 ‘좋아한다’고 말해 버려서 그게 심한 장난이라 생각한 유라가 크게 화를 내어 둘은 잠시 멀어지지만 어느날의 폭우로 후지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유라에게 후지가 정식으로 고백해서 둘은 연인이 되었다.[8]

유라는 후지와 사귀고 나서도 이름이 아닌 ‘후지군’ 이라는 성으로 부르는.. 이게 후지에게는 불안요소이나 그것은 기우일 뿐이다.[9]

[편집]

Ⅴ 5.대인관계

후지 슈스케 - 좋지못했던 첫 만남. 우연한 계기로 친구가 되고 연인으로 발전.

키쿠마루 에이지 - 같은 반 남자아이로 후지와 같은 테니스부.

그 외 같은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즈미쥬카](#)와 같은 도서위원인 텐도 사토루가 있다.

[편집]

Ⅴ 6.여담

유라는 후지의 누나인 유미코에게 엄청난 애정을 보이는데 여자형제가 없어 언니를 가져보는게 소원이었기 때문. ‘お姉さま’ 하며 엄청 따르고 유미코 또한 여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남동생만 둘) 유라를 매우 아낀다. 가끔 후지를 따돌리고 둘이 다닐 정도.

[편집]

Ⅴ 7.어록

‘응? 내가 말 안했던가’

‘이름을 부르는건 왠지 부끄럽잖아’

‘내가.. 내가.. 어떻게 널 잊어...’[10]

[1] 유라의 한국어 이름. 오빠 유진과 돌림자를 쓰면서 일본어 발음이 같은 것으로 골라 지었다.

[2] 유라의 일본어 이름. 코토는 일본 굴지의 기업 [코토산업](#)의 창업주 이름이다. 현재 유라의 외조모가 회장.

[3] 유진은 아버지가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한국인. 유라를 매우 아끼는 [시스콤](#). 고교에서 실력있는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4] [산리오](#)의 캐릭터 인형으로 만든 키링. 크레인 게임으로만 뽑을 수 있어서 몇 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모양. 나중에 후지와 데이트 가서 후지가 뽑아줘서 유라가 가방에 달았다.

[5] 친구들과 한국여행을 온 어머니는 우연히 만난 테니스 선수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이미 결혼한 전적이 있고 아이도 있어서 아버지쪽에선 계속 거절해왔지만 일본에 돌아가지도 않고 구애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저서 결국 결혼 엔딩. 그 패널티를 다 감수할 정도로 아버지가 잘생기신 모양;;;

[6] 유라가 고양이를 찾아 학교 수풀속을 뒤지고 있을때 후지가 타학교 경찰관으로 생각해서 물총을 쏜 사건. 이 일로 후지는 유라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을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유라는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후지가 유라에게 사과하게 되면서 유라가 알게 된다.
([참조](#))

[7] 길에서 불량배들에게 붙잡혀 있을때 후지가 기지를 발휘해 구해줘서 답례로 식사 대접을 하며 후지가 매운 것을 잘 먹자 그리운 한국의 매운 간식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청한다. 후지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둘은 즐거운 식사메이트가 되어 방과후 데이트를 즐긴다.([참조](#))

[8] 후지의 장난 같은 고백에 화를 내 버린 유라. 둘의 사이는 어색해지고 후회만 하던 나날.. 스케치를 나갔던 유라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난처해 있을 무렵 후지가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쉬게 해준다. 다음날 맑은 정원에서 한 번 더 고백하는 후지. 유라는 가슴이 저릿함을 느끼며 자신도 후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연인이 되는 두 사람.([참조](#))

[9] 유라가 이름으로 부르지 못한 것은 후지 한정으로 다른 친구들과는 이름부르기를 잘 하고 있다. 즉, 후지가 유라에게는 후지가 그만큼 남다른 큰 의미이기 때문인 것.

[10] 본편 외의 고교생이 되었을때의 이야기다. 후지를 좋아하는 여학생 몇이 유라를 괴롭히다 사고가 나서 유라가 부분 기억 상실을 일으킨 것. 운명의 장난인지 딱 후지와 알고 지냈던 일년의 기억이 사라졌다.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유라의 기억이 돌아오던 날.. 후지를 만난 유라가 했던 말.([참조](#))